

# 세계도시동향

헤드라인뉴스	1	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'노인종합수당' 지급	상하이
사회·복지	3	취약계층 공립초등생에 아침 무료 제공	빅토리아
	5	'학생에 동등한 급식 제공' 시립 급식관리센터 설립	파리
환경·안전	7	산업구조 전환하고 수질·대기오염 전면 개선	장쑤
도시교통	9	거리 미래상 제시해 시민 삶의 질 높인다	고베
도시계획·주택	12	시민주도형 공공공간 활성화 프로젝트 본격 시행	싱가포르
	14	'도쿄·지방 상생발전 실현' 종합전략 수립	도쿄

##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‘노인종합수당’ 지급

‘자녀에 부모의 정신적 부양의무 명문화’ 노년인권조례도 시행

중국 상하이시 / 사회·복지

- 중국 상하이시는 노인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‘노인종합수당제도’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정신적 부양의무 등이 담긴 ‘노년인권보장조례(上海市老年人权益保障条例)’를 2016년 5월부터 동시에 시행
- 노인종합수당제도
  - 상하이시 호적을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나이별로 최저 75위안(13,200원)에서 600위안(10만 6,000원)까지 노인종합수당을 차등 지급
  - 상하이시는 대상 노인에게 직불카드 기능을 갖춘 ‘상하이시 경로카드(上海市敬老卡)’를 발급할 예정
  - 상하이시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연간 45억 위안(8천억 원)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
  - 또한 이 제도의 시행으로 280만 명 이상의 노인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
- 노년인권보장조례
  - 배경
    - 중국의 고령화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됨.
    - 상하이시의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은 30%를 상회
  - 주요 내용
    - 상하이시는 고령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자녀들이 부모의 거주지나 요양시설을 자주 방문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함.
    - 부모는 자녀가 정신적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자녀가 정신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.
    - 노인요양시설의 관계자도 장기간 부모를 방문하지 않는 자녀에게 부모를 방문할 것을 촉구할 수 있음.
    - 만약 부모의 거주지나 요양시설을 자주 방문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해당 자녀의 신

용정보에 악영향을 주도록 함.

- 제재사항
  - 상하이시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신용이 하락한 자녀에게는 고위직 승진에 불이익을 주거나 공공기관의 입찰 등에 제한을 둘 것이라고 밝힘.
  - 또한 은행계좌 개설제한, 신용불량자, 대출제한 등의 조치가 부가됨.
  - 이 규정은 뺑소니 범죄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라고 현지 언론은 덧붙임.

<http://www.shio.gov.cn/shxwb/xwfb/u1ai10420.html>

<http://shzw.eastday.com/shzw/G/20160204/u1ai9209824.html>

<http://www.yjbys.com/gongwuyuan/show-502119.html>

## 사회·복지

### 취약계층 공립초등생에 아침 무료 제공

호주 빅토리아주 / 사회·복지

- 호주 빅토리아주는 아침식사를 거르고 학교에 오는 취약계층 공립초등학생들에게 아침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‘무료 아침식사(Breakfast Clubs)’ 프로그램을 시행
- － 배경
  - 통계에 의하면 호주 학생 7명 중 1명은 아침 식사를 거르고 등교
  - 이 중 일부는 습관적인 결식자이나 상당수는 가정의 경제적인 이유나 부모의 건강상의 문제에 원인이 있음.
  - 결식 학생은 사립학교(48%)보다 공립학교(75%)에서 더 많이 발견됨.
- － 실행 계획
  -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1,370만 호주달러(120억 원)의 예산을 배정
  - 이 프로그램은 2016년 2분기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행
  - 아침식사는 수업이 시작하기 전인 오전 8시~8시 50분 사이에 제공됨.
  - 연내에 총 500개의 학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



학교 아침식사 클럽에 참여하고 있는 마호가니 라이즈 초등학교  
(Mahogany Rise Primary School)

- 참여 학교는 주정부 교육부에서 매년 산출하는 ‘학부모 직업지수(Student Family Occupation Index)’를 기준으로 상위 500개 학교를 선정
  - 학부모 직업지수는 학교의 사회경제적 취약도 지표로 사용되고 있으며, 저소득계층의 학생이 많은 학교에서는 이 지수가 높게 나타남.
-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와 호주 푸드뱅크(Foodbank Australia) 간의 협력사업으로 운영
  - 호주 푸드뱅크는 비영리단체로서 식품도소매업체, 식품제조업체, 농가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
  - 호주 푸드뱅크는 주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음식 준비 및 제공, 프로그램 관리 등의 실질적인 책임을 담당

#### – 기대효과

- 아침식사 제공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학생들이 겪는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.
- 또한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집중력 및 학습성과 향상, 출석률 제고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
-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하루에 약 25,000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
- 호주 푸드뱅크는 1kg의 아침식사가 가져오는 사회적 수익이 110호주달러(96,000원)라고 비용효과를 분석

<http://www.premier.vic.gov.au/breakfast-clubs-launch-at-78-new-schools/>

<http://www.education.vic.gov.au/about/programs/health/Pages/breakfastclubs.aspx>

<http://www.foodbankvictoria.org.au/files/2015/07/Foodbank-Hunger-in-the-Classroom-Report-May-2015.pdf>

<http://www.foodbankvictoria.org.au/2016/02/18/catherine-andrews-drops-breakfast-club-mahogany-rise-primary-school-frankston-north/>

## ‘학생에 동등한 급식 제공’ 시립 급식관리센터 설립

프랑스 파리市 / 사회·복지

- 프랑스 파리市는 학교급식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동등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시립 급식관리센터를 2018년까지 설립할 예정
- － 배경
  - 현재 파리시의 초·중·고교의 급식은 구별로 운영
  - 급식비의 50%는 시청에서 지원하고 50%는 학부모가 부담
  - 초중고 학생의 80%가 급식을 이용
- － 문제점
  - 구별로 제공되는 급식의 품질에 차이가 큼.
    - 친환경재료를 3.5%만 사용하는 구가 있는가 하면 75%를 사용하는 구도 있음.
  - 각 구의 교육재정센터별로 재료구입비가 다르게 책정됨.
    - 동일 품목의 재료구입비가 114%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음.
    - 구입비의 차이는 급식 예산과 급식비 산정에도 영향을 미침.
  - 자치구별로 급식비 산정방식이 달라 사회적 논쟁과 계층 불평등의 원인이 됨.
- － 주요 내용
  - 급식의 개선
    - 2020년까지 모든 학교의 급식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재료를 최소 50% 이상 사용
    - 정기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
    - 급식사업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건강한 음식 맛과 음식 아끼기, 분리수거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
  - 급식비 수납방식의 현대화
    - 급식비는 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산정
    - 구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던 급식비 차등 산정방식을 시 차원에서 단일화

- 구별 특성 유지
  - 구별로 기존에 개발한 메뉴와 학생별 선택의 자유는 유지
  - 구별 메뉴선정위원회의 역할 존중 및 노하우 공유
- 경영 개선
  - 구별로 지출되던 경영비용을 공동지출로 변경
  - 급식사업을 단일기관이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혼선 감소
- 급식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
  - 직업훈련을 마친 사람은 파리시 산하기관 직원으로 채용이 가능
  - 고용지위의 보호조항 강화
  - 현재 구별로 고용된 모든 학교급식 종사자의 고용 승계

<http://www.paris.fr/restaurationscolaire>

## 환경·안전

### 산업구조 전환하고 수질·대기오염 전면 개선

중국 장쑤성 / 환경·안전

- 중국 장쑤성은 성내 환경개선 대책인 ‘장쑤성 환경보호 행동방안(江苏省生态文明建设环境保护重点任务行动方案)’을 2016년 3월 발표
  - 장쑤성은 행동방안에서 2017년까지 산업구조의 전환 및 수질·대기오염 개선, 토양 정비, 생태회복 등 8개 분야 40개 중점 항목을 대상으로 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



수질오염이 매우 심각한 장쑤성의 모습

- 주요 내용
  - 산업구조의 전환
    - 생태공간의 보호를 위해 레드 라인의 대상 범위 확대
    - 10대 중점 산업의 친환경화 촉진
    - 도시오염의 주범이 되는 기업 철수 등
  - 수질오염 방지
    - 양쯔강(揚子江)과 타이호(太湖) 등의 중심수역 관리



- 지하수 오염방지 및 하수처리시설 개조
- 오염하천 56곳의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2016년 말까지 수립하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
- 대기오염 개선
  - 2017년까지 장쑤성 지역의 초미세먼지(PM 2.5) 평균농도를 2015년보다 8% 낮추고 도심지역의 공기질 우량률(優良率) 일수\*를 확대
  - 석탄소비량을 지속적으로 줄여 2020년에는 석탄소비량이 2012년 대비 낮아지도록 함.
  - 또한 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도 60% 이하로 축소
- 토양 정비
  - 토양오염이 심각한 농지나 건설용지 20곳을 선정하여 2017년까지 ‘복구 모델 프로젝트’를 실시
  - 농지의 중금속 조사와 복구 추진
  - 채소의 주요 산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

<http://www.yangtse.com/jiangsu/2016/03/24/832450.html>

<http://www.zjszhh.com/news/detail.aspx?ID=387>

[http://www.jsdpc.gov.cn/zixun/fgyw\\_1/201603/t20160325\\_417671.html](http://www.jsdpc.gov.cn/zixun/fgyw_1/201603/t20160325_417671.html)

<http://www.hbzhan.com/news/detail/105786.html>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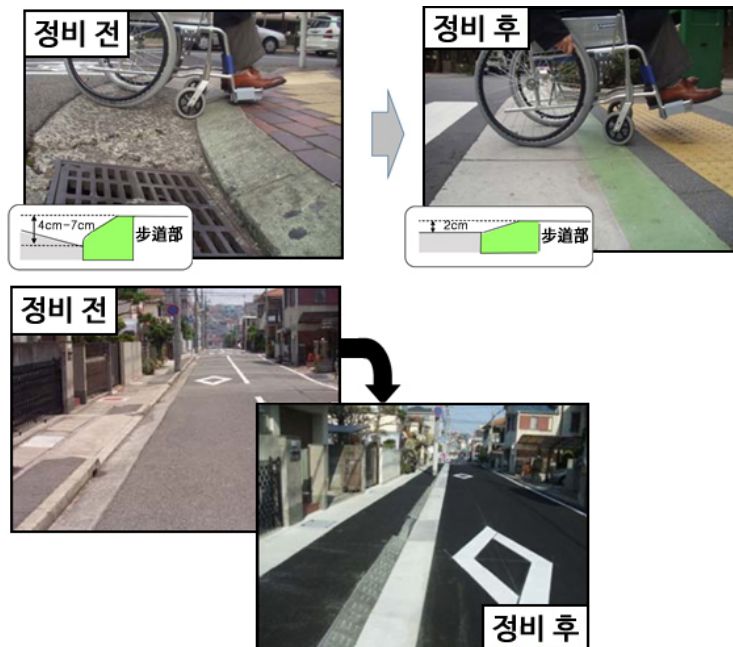
\* 공기질 우량률 일수: 초미세먼지 농도가 우수한 날과 양호한 날을 합산한 일수

# 도시교통

## 거리 미래상 제시해 시민 삶의 질 높인다

일본 고베市 / 도시교통

- 일본 고베市는 앞으로 인구와 교통량 감소 등의 사회변화에 따라 시의 가로경관 정비와 거리의 미래상 정립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1년도 수립한 ‘거리만들기 계획(みちづくり計画)’을 개정하여 새롭게 수립한 실행계획을 2016년 3월 발표
  - 이번 계획은 ‘살리다(活かす)’, ‘연결하다(つなぐ)’, ‘지키다(守る)’라는 3가지 개념을 통해 2025년까지 거리의 미래상 실현이 목표
  - 또한 2020년까지 3가지 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제시
- 실행방안 1. ‘살리다(活かす)’
  - 누구나 걷기 쉬운 길
    - 유니버설 보도 정비: 누구나 걷기 쉽고 안전한 길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의 단차 해소 및 벤치, 난간, 슬로프 등을 설치



도로의 단차 정비 전후의 모습

- 안내표지 정비: 거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 내용과 디자인을 통일
- 시민과 함께 지키는 안전한 길: 시민들과 함께 거리건기를 통하여 도로의 안전점검
- 생활도로의 교통안전 대책: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생활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색채형 도로포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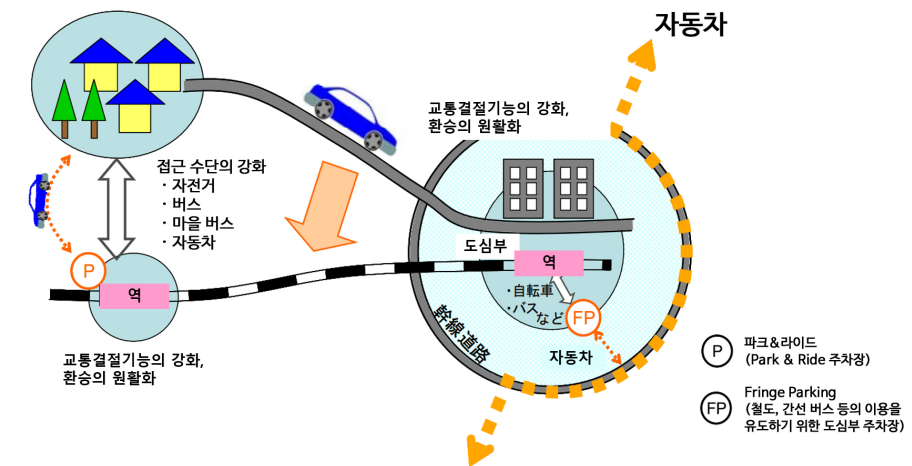


단차가 없는 도로에 색채포장(바깥쪽: 초록색, 안쪽: 회색)

- 자전거가 이용하기 쉬운 길
    - 자전거 주행공간의 정비: 자전거의 안전성, 쾌적성, 주행성 확보를 위해 도로에 색채포장이나 연석 설치 등 보행공간과 주행공간을 분리
  - 활기를 창출하는 길
    - 활기와 휴식이 공존하는 도로 공간 창조: 보행자가 걷기 좋은 공간을 창출하고, 넓은 보도가 있는 지역에는 노천카페와 벤치 등을 설치
  - 경관을 고려한 길
    - 도로 디자인의 향상: 공공공간 디자인 조인가 제도를 활용
    - 시민과 함께 하는 가로수 관리
- － 실행방안 2. ‘연결하다(つなぐ)’
- 사람들의 생활권 확대: 고베 지역과 오사카항 등을 연결하는 광역권 고속도로의 네트워크 정비

－ 실행방안 3. ‘지키다(守る)’

- 재해에 강한 거리
  - 긴급 수송도로 선정: 재해 시 다른 지역과 연결이 가능한 긴급 수송 도로를 정하여 그 도로에 위치한 교량의 내진화와 무전신주화(無電柱化)를 추진
- 친환경을 고려한 거리
  -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: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공공요금체계 도입과 파크 앤드 라이드(Park and Ride)\* 등을 활용



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도심부 자동차 교통 제어 개념도

- 환경을 고려한 도로포장기술 도입: 보도는 투수성 포장을 하고 차도는 차열성 포장을 검토

<http://www.city.kobe.lg.jp/information/project/construction/michikei/>

<http://www.city.kobe.lg.jp/information/project/construction/michikei/img/h27michikei-gaiyou.pdf>

<http://www.city.kobe.lg.jp/information/project/construction/michikei/img/h27michikei-all.pdf>

\* 파크 앤드 라이드: 역까지는 자동차로 이동한 후,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방식

## 도시계획·주택

### 시민주도형 공공공간 활성화 프로젝트 본격 시행

싱가포르 싱가포르市 / 도시계획·주택

-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(Urban Renewal Authority)은 도시 내 활용도가 낮은 공공공간을 매력적인 장소로 꾸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가 지원하는 시민주도형 공공공간 프로젝트인 ‘시민들이 좋아하는 장소(Our Favorite Place)’ 계획을 발표
- － 배경
  - 도시재개발청은 2013년 주민참여형 공공공간 활성화 시범사업인 ‘PubliCity’를 시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음.
  - 최근 이 프로젝트를 다시 보고 싶다는 시민들의 요청이 증가
- － 사업 내용
  - 아이디어의 선정기준
    - 시민들이 제안한 장소의 특성, 이벤트의 공공성
    - 활용도가 낮은 공공공간의 활용 정도
  - 행정지원
    -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 원스톱 행정지원 서비스 제공
    - 6개월 이하의 프로젝트는 5천 싱가포르 달러(420만 원)를 지원하고 6개월 이상의 프로젝트에는 1만 싱가포르 달러(840만 원)를 지원
    - 필요한 경우 협찬사, 토지나 건물 소유주와의 협상도 지원
- － 시범사업의 사례
  - Picnic in the Park: 잘 사용되지 않는 소규모 공원에 피크닉 테이블과 그네를 설치하여 가족 단위의 방문을 유도

- Chairs in Squares: 가구회사 이케아(IKEA)의 협찬을 받아 이동 가능한 의자 60여 개를 광장에 두고 시민들이 마음대로 옮기면서 앉아 쉴 수 있게 함.



**Chairs in Squares**

- Play it Forward: 지역 예술가들이 오래된 피아노를 예술적으로 리폼하여 공공공간에 두고 시민들이 연주할 수 있게 함.



**Play it Forward**

<https://www.ura.gov.sg/uol/media-room/news/2016/apr/pr16-20.aspx>

<https://www.ura.gov.sg/skyline/skyline14/skyline14-02/article-05.html>

[https://www.ura.gov.sg/MS/publicity/~media/Publicity/News/Publicity\\_Chairs\\_in\\_Squares\\_Media\\_Factsheet.ashx](https://www.ura.gov.sg/MS/publicity/~media/Publicity/News/Publicity_Chairs_in_Squares_Media_Factsheet.ashx)

<https://playitforwardsg.org/>

## ‘도쿄·지방 상생발전 실현’ 종합전략 수립

일본 도쿄都 / 도시계획·주택

- 일본 도쿄都는 도쿄와 지방이 협력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고 이 모델을 바탕으로 일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‘도쿄 종합전략(東京都総合戦略)’을 2015년 11월 수립
- 주요 내용
  - 도쿄와 지방의 공존
    - 도쿄와 지방이 가진 특색을 바탕으로 상호협력하며 일본 전체의 발전을 도모
  - 일본의 경제 활성화 견인
    - 도쿄를 사업하기 쉬운 도시로 발전시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경제성장을 일본 전 지역의 경제 활성화로 연결
  - 사회문제의 해결
    - 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육아환경 개선, 지역포괄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
    -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수도권의 3개 현(県)과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모색
- 실행계획
  - 도쿄와 지방의 공존
    - 전국 각지와 연계된 산업진흥
      - 도쿄산 식자재와 지방의 특산품 등을 전시·판매하는 ‘도쿄 맛 페스티벌’ 개최
      - 전국의 장인들을 초청해 모노즈쿠리(ものづくり) 이벤트 개최
      - 전국의 산지와 도쿄가 협력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을 출시
    - 도쿄와 지방의 특색을 살린 관광 발전계획
      - 각 지역과 협력하여 외국인 여행객 및 MICE 유치 등
    - 도쿄와 지방의 협력을 통한 예술·문화 활동 전개
      - 도쿄의 문화시설을 이용하여 각 지방 고유의 문화행사 개최
      - 수도권의 예술·문화시설 등과 공동으로 ‘광역 입장권’ 제도 도입 등

- 일본의 경제 활성화 전인
  - 세계 제일의 국제 경제도시로의 발돋움
    - 국가전략특구 제도를 활용하여 외국기업과 인재 유치를 촉진
    - 생명과학 분야에서 산·학·공 협력을 추진하여 도쿄를 국제적인 생명과학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성장시킴.
  - 외국인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도시로 성장
    - 교통·의료기관, 음식점, 숙박시설 등에서 다양한 외국어로 안내
    - 관광객이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
  - 저탄소사회의 실현
    - 수소연료전지차, 수소연료전지 버스의 보급 확대
    - 수소 충전소의 설치 촉진
    - 가정용 연료전지의 보급 확대
- 사회문제의 해결
  - 도쿄도와 수도권 3개 현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'일도삼현 지방 상생 협의회(一都三県の地方創生に関する連絡会議)'를 2015년 6월에 구성
  - 간호 및 돌봄 분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동 홍보 및 이벤트 실시
  - 향후 효과적인 간호 및 돌봄 대책으로 '간병 로봇'의 활용 방안에 대한 정보 공유



‘간병 로봇’의 활용 모습

[http://www.seisakukikaku.metro.tokyo.jp/tokyo\\_senryaku/pdf/honbunzentai.pdf](http://www.seisakukikaku.metro.tokyo.jp/tokyo_senryaku/pdf/honbunzentai.pdf)

[http://www.seisakukikaku.metro.tokyo.jp/tokyo\\_senryaku/pdf/senryakugaiyou.pdf](http://www.seisakukikaku.metro.tokyo.jp/tokyo_senryaku/pdf/senryakugaiyou.pdf)

<http://mainichi.jp/articles/20151107/ddl/k13/010/254000c>

<http://www.j-cast.com/trend/2015/02/27228929.html>